

유사보험(우체국보험 중심) 수익구조 및 개선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보험연금 대학원

박영민, 이원혁

I. 검토배경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운영되는 민영보험과는 별도로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개별 근거법 등에 의해 운영되는 유사보험 시장도 발달 되었으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체국보험이다.

우체국보험은 조합원이나 회원만으로 대상으로 하는 일반 공제와 달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민영보험사와 경쟁관계에 있으나, 유사보험 관련 규제차익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이 지속되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거세지고 있고,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로 인해 규제 개선 방안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 배경에는 국내 보험시장이 점차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성장성이 둔화되고 시장경쟁은 심화되며, 수익성 악화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국제회계기준의 규정이 도입되면서 보험 산업에 대한 규제 또한 강화되고 있으며,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자금운용을 통한 수익 달성도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체국보험도 한·미 FTA 발효 이후 규제 강화 및 사업 운영의 자율성이 축소되었고 저금리 환경에서 다른 민영 생명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안정적 수익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체국보험과 민영보험사 실적 등의 비교를 통해 우체국보험의 목적(사회적 안전망 역할, 농어촌과 서민위주의 서비스 제공 충실 등)실현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우체국보험(유사보험)에 대한 이해(민영보험사 비교를 통해)

1. 지배구조 비교

[보험] 자산 2조원이상 보험회사에 대해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규제를 적용하고, 전 보험회사에 대해서 준법감시인 선임 및 내부통제 규제를 적용

[공제] 우체국보험은 보험과 같은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지 않고, 외부 위원제도 등을 통해 유사한 기능을 수행

※ 우체국보험은 보험적립금 운영분과위원회와 우체국금융위험관리분과위에 외부 위원을 참석시켜 사외이사 기능을 수행

2. 자산운용 규제 관련

[보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금지, 고위험자산 투자한도 설정, 특별계정 설정 등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

[공제] 우체국보험 운용 가능자산을 규정(Positive 방식)

구분	보험회사	우체국
자산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Negative 방식•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Positive 방식
특별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퇴직/변액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정없음
자회사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이상 출자시 금융위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정없음
불공정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공정대출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정없음

※ 불공정대출 :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가입 강요, 부당하게 담보 및 연대보증 요구 및 대출시 부당한 편익을 제공받는 경우 등

※ Positive 방식 : 원칙적으로 모든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을 나열하는 열거주의 방식임

3. 재무 건전성 감독 관련

[보험] RBC, RAAS 등 재무건전성 관련 감독제도 시행중

[공제] 우체국보험은 RBC, RAAS 제도 미도입

※ 국가가 보험금 지급 의무를 가지고 있어 리스크가 적다는 특성이 있음

4. 책임준비금 적립 강화 및 CFP 도입

[보험]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책임준비금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평가

○ 13.4월부터 CFP(Cash Flow Pricing)제도* 전면 도입

* Cash Flow Pricing : 미래발생할 현금흐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이용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3이원 방식에 비해 가격에 다양한 요소 (이익, 계약유지율, 판매규모 등) 반영 가능함

[공제] 보험업법을 준용하여 형식상으로 책임준비금 제도를 두고 있으나, 책임준비금 종류 및 세부 적립기준에 차이 (CFP제도 일정 미수립)

5.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을 '11.4월 전면도입하여 시행중

[공제] 우체국보험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미도입

6. 모집종사자 교육 및 등록

[보험] 모집종사자(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자격요건 및 등록제, 보수교육 의무화 규제를 하고 있고, 모집종사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

[공제] 임직원, 소정의 자격시험 합격자를 모집종사자로 운영중이며, 보수교육 의무화 하고 있음

7. 모집질서 규제

[보험] 보험안내자료 교부 및 설명의무, 중복계약 확인 의무, 통신판매 준수사항 등 모집행위 규제 적용

[공제] 원칙적으로 보험회사의 모집행위 규제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으나, 일부 규제사항은 누락되거나 완화

Ⅲ. 우체국보험의 경영성과 분석

우체국보험은 신계약건수, 보유계약고, 자산 등 사업규모에서 국내 생명보험사 시장의 4~5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우체국보험이 시장에서의 높은 위상에 걸맞은 건실한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민영 생명보험사와 수익구조를 비교하였다.

비교 분석할 지표는 크게 영업 지표, 효율성 지표, 수익성 지표의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제 1 장 영업 지표

1. 신계약

민영 생명보험사 전체 대비 우체국보험의 신계약 건수의 시장점유율은 FY2009년에 6.37%를 기점으로 FY2013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나, FY2014부터는 신계약 건수와 더불어 점유율도 감소 추세이다.

하지만, FY2017 우체국보험 신계약 건수기준 점유율은 6.7%로 삼성, 한화에 이어 3위로 높은 수준이다.

<표1-1>

(건, %)

신계약		FY2009	FY2010	FY2011	FY2012	FY2013	FY2014	FY2015	FY2016	FY2017
우체국보험	건수	1,524,995	2,033,445	1,787,521	1,989,708	1,875,918	1,380,249	1,280,283	1,287,000	1,004,004
	점유율	6.37	9.94	10.11	10.47	13.32	8.48	8.04	8.23	6.70
한화생명	건수	1,768,738	1,499,143	1,615,906	2,220,571	1,078,946	1,713,758	1,795,885	1,877,717	1,819,639
	점유율	7.38	7.33	9.14	11.69	7.66	10.53	11.28	12.01	12.15
삼성생명	건수	2,214,735	2,223,576	2,321,553	2,166,920	1,731,151	2,052,079	1,925,511	1,836,906	1,825,199
	점유율	9.25	10.87	13.13	11.4	12.29	12.61	12.1	11.75	12.18
교보생명	건수	1,016,236	920,684	997,282	1,026,767	718,401	916,674	893,202	842,567	798,831
	점유율	4.24	4.5	5.64	5.4	5.1	5.63	5.61	5.39	5.33
생보합계 (우체국포함)	건수	23,953,434	20,454,311	17,681,084	19,001,878	14,086,441	16,271,013	15,918,482	15,638,996	14,982,129
	점유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신계약 건수 : 일반계정 및 주계약 기준

2. 보유계약

회사가치 창출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보유계약 건수는 우체국보험의 점유율이 민영 생명보험사 신계약 건수 점유율보다 더 높다

(우체국보험 신계약대비 보유계약 점유율 차 : FY09 +6.09%p, FY13 +6.49%p, FY17 +8.50%p)
 이는 우체국보험이 민영 생명보험사보다 불완전 판매 등에 의한 계약 해지가 적고 유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유계약 건수를 기준, FY2017 우체국보험의 점유율은 15.2%로 한화, 교보 보다 높은 2위 수준이다

<표1-2>

(건, %)

보유계약		FY2009	FY2010	FY2011	FY2012	FY2013	FY2014	FY2015	FY2016	FY2017
우체국보험	건수	10,644,827	11,562,872	12,219,157	13,040,797	13,746,765	14,015,353	14,318,193	14,715,322	14,852,603
	점유율	12.46	13.73	13.76	14.32	14.69	14.97	14.98	15.17	15.20
한화생명	건수	9,773,058	9,696,549	9,859,609	10,524,398	10,611,019	10,779,313	10,921,161	11,013,099	11,054,129
	점유율	11.44	11.51	11.1	11.56	11.34	11.52	11.43	11.35	11.31
삼성생명	건수	17,377,960	17,354,221	17,426,972	17,322,313	17,634,778	17,826,260	17,939,647	17,973,096	17,602,845
	점유율	20.35	20.6	19.63	19.02	18.84	19.05	18.77	18.53	18.01
교보생명	건수	7,980,476	7,968,129	8,147,753	8,314,716	8,401,614	8,429,977	8,486,965	8,509,496	8,308,461
	점유율	9.34	9.46	9.18	9.13	8.98	9.01	8.88	8.77	8.50
생보합계 (우체국포함)	건수	85,410,856	84,226,340	88,791,096	91,064,616	93,585,415	93,595,468	95,589,682	97,006,686	97,729,636
	점유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보유계약 건수 : 일반계정 및 주계약 기준

3. 수입보험료

당해연도 신계약을 통한 초회보험료와 유지되는 계약을 통해서 유입되는 보험료 금액의 합계인 수입보험료를 살펴보면, FY2017 민영 생명보험사는 FY2009대비 48.9% 증가한 반면 우체국보험은 FY2017에 5조8,746억 원으로 FY2009 대비 22.3% 감소하였고, 점유율도 6.9%로 FY2009대비 5.5%p나 줄어들었다.

<표1-3>

(억원, %)

수입보험료		FY2009	FY2010	FY2011	FY2012	FY2013	FY2014	FY2015	FY2016	FY2017
우체국보험	금액	75,561	69,474	74,104	98,489	82,737	53,558	59,538	56,213	58,746
	점유율	12.4	10.84	10.92	10.12	13.13	6.42	6.7	6.3	6.9
한화생명	금액	65,448	67,313	70,048	99,918	64,008	91,530	102,327	104,736	95,867
	점유율	10.74	10.5	10.32	10.27	10.16	10.97	11.52	11.7	11.2
삼성생명	금액	145,147	145,894	147,262	220,521	125,202	174,112	172,866	166,693	165,156
	점유율	23.83	22.76	21.7	22.66	19.88	20.87	19.46	18.7	19.4
교보생명	금액	66,779	68,785	68,153	88,269	56,144	80,756	78,255	78,741	76,139
	점유율	10.96	10.73	10.04	9.07	8.91	9.68	8.81	8.8	8.9
생보합계 (우체국포함)	금액	609,152	640,952	678,493	973,182	629,939	834,380	888,254	893,012	853,180
	점유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수입보험료 : 일반계정 기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FY2014에 우체국보험의 수입보험료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주요 원인은 보험관리사가 거두어들인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11.94%가 감소하였으나 직원들이 거두어들인 수입보험료는 무려 48.66%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수입보험료 급감 주요 원인은 모집수당 지급률의 조정 때문이다.

4. 총자산

생명보험사 전체 총자산 대비 우체국보험의 총자산 비율을 살펴보면, 관측 회계연도 가운데 FY2013에 7.17%로 최고치를 나타냈으며 전체적으로 6.08~7.1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FY2017 우체국보험 총자산은 53조 8,753억으로 생보사 전체 기준 6.08%의 점유비를 나타내고 있다.

<표1-4>

(억원, %)

총자산		FY2009	FY2010	FY2011	FY2012	FY2013	FY2014	FY2015	FY2016	FY2017
우체국보험	금액	285,859	318,087	356,974	416,652	461,280	477,170	493,777	511,729	538,753
	점유율	7.12	7.09	6.71	6.81	7.17	6.72	6.38	6.14	6.08
한화생명	금액	589,978	637,239	688,447	774,395	820,539	916,451	988,554	1,053,313	1,103,131
	점유율	14.7	14.21	12.93	12.66	12.75	12.91	12.77	12.64	12.44
삼성생명	금액	1,330,451	1,493,536	1,605,894	1,854,751	1,910,034	2,112,041	2,262,438	2,419,041	2,583,879
	점유율	33	33	30	30	30	30	29	29.03	29.14
교보생명	금액	541,401	578,846	623,608	699,563	736,626	801,417	865,889	916,727	977,919
	점유율	13.49	12.91	11.72	11.44	11.45	11.29	11.18	11.00	11.03
생보합계 (우체국포함)	금액	4,012,106	4,484,607	5,322,758	6,115,018	6,436,081	7,097,922	7,742,790	8,333,350	8,867,022
	점유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총자산 : 일반계정 기준

5. 운용자산

생명보험사 전체 운용자산 가운데 우체국보험 운용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7.30~9.0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운용자산 점유율이 총자산 점유율보다 +1.22~+1.93%p 높은 수준으로 민영보험사 전체 대비 총자산점유비(6.08%)보다 운용자산의 비율(7.30%)이 높다. 하지만 최근들어 운용자산의 성장률이 주요 민영 생명보험사보다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보험금지급이 수입보험료 대비 높은 것에 기인한다.

<표1-5>

(억원, %)

운용자산		FY2009	FY2010	FY2011	FY2012	FY2013	FY2014	FY2015	FY2016	FY2017
우체국보험	금액	274,050	308,418	348,326	401,662	443,727	463,505	480,222	499,141	516,692
	점유율	9.05	9.03	8.33	8.26	8.67	8.14	7.73	7.43	7.30
한화생명	금액	438,749	484,080	515,622	585,272	618,550	702,220	764,657	821,875	843,598
	점유율	14.49	14.18	12.33	12.04	12.09	12.33	12.3	12.23	11.92
삼성생명	금액	1,072,285	1,186,560	1,303,030	1,505,808	1,542,245	1,702,996	1,800,350	1,940,742	2,061,685
	점유율	35.41	34.76	31.15	30.98	30.14	29.91	28.97	28.88	29.12
교보생명	금액	403,482	436,047	475,561	535,052	562,165	615,826	662,419	705,418	750,707
	점유율	13.32	12.77	11.37	11.01	10.99	10.81	10.66	10.50	10.61
생보합계 (우체국포함)	금액	3,028,442	3,413,963	4,182,958	4,860,708	5,117,468	5,694,381	6,214,726	6,720,459	7,078,803
	점유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운용자산 : 일반계정 기준

제 2 장 효율성 지표

1. 신계약률

사업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신계약률은 보유계약 확대에 따라 지속하락 추세이나, FY2017의 우체국보험 신계약율은 교보, 한화에 이어 3위수준이다.

신계약 확대는 보험사의 장기적인 수익기반을 마련하고 수익성 확보의 원천이 되므로 신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다

<표2-1>

(%)

신계약율	FY2009	FY2010	FY2011	FY2012	FY2013	FY2014	FY2015	FY2016	FY2017
우체국보험	18.49	20.92	17.73	18.85	13.26	8.54	10.69	10.52	8.57
한화생명	16.38	14.02	14.33	16.17	8.7	11.24	14.04	11.54	9.6
삼성생명	16.59	15.46	15.7	17.15	10.35	13.46	12.04	9.67	8.33
교보생명	22.96	18.25	16.98	17.01	11.43	14.7	13.57	11.76	10
생보전체평균 (우체국제외)	23.11	20.13	19.31	20.78	13.31	17.62	16.95	14.95	12.84

* 신계약금액, 연초보유계약금액: 일반계정 기준 * 신계약률=(신계약금액/연초보유계약금액)×100.

2. 보험금지급률

우체국보험의 보험금지급률을 살펴보면 FY2009~FY2013까지 50% 후반대로 나타나 주요 민영 생명보험사 평균 지급률과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FY2014~FY2017은 가입실적 부진 등으로 90%이상 급격히 높아졌다가 FY2017은 77%로 대형사 수준을 회복하였다. 보험금 지급률은 당해연도 수입보험료 대비 비율로서 비율이 낮을수록 자금운용 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 자금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표2-2>

(억원, %)

보험금지급률		FY2009	FY2010	FY2011	FY2012	FY2013	FY2014	FY2015	FY2016	FY2017
우체국보험	금액	44,689	50,944	43,180	53,411	48,407	53,701	56,542	53,264	45,475
	지급률	59.14	73.33	58.27	54.23	58.51	99.05	94.97	94.75	77.41
한화생명	금액	47,424	46,089	44,043	46,475	35,446	53,046	58,654	63,592	68,825
	지급률	72.46	68.47	62.88	46.51	55.38	58.67	57.32	60.72	71.79
삼성생명	금액	115,858	95,053	91,712	93,632	69,910	100,358	101,911	105,872	118,838
	지급률	79.82	65.15	62.28	42.46	55.84	57.64	58.95	63.51	71.96
교보생명	금액	45,295	44,733	40,208	43,881	32,369	46,759	49,936	52,194	57,294
	지급률	67.83	65.03	59	49.71	57.65	57.9	63.81	66.29	75.25
생보전체 평균 (우체국제외)	금액	316,521	309,467	322,962	396,904	299,638	428,912	442,766	475,736	522,951
	지급률	59.32	54.15	53.44	45.38	54.76	54.94	53.43	56.85	65.83

* 보험금지급률=(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일반계정) × 100.

3. 사업비율

우체국보험의 사업비율을 살펴보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지만, 민영 생명보험사 전체 평균 대비 비율이 FY2017은 88.03%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우체국보험 사업비율이 낮은 주요 요인은 보험계약으로 수입보험료를 거두어 들이는 보험관리사와 직원의 비율이 FY2015기준 보험관리사가 50.60%, 직원이 49.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직원인 공무원에 지급하는 사업비(수당)가 보험관리사 대비 약 4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표2-3>

(억원, %)

사업비율		FY2009	FY2010	FY2011	FY2012	FY2013	FY2014	FY2015	FY2016	FY2017
우체국보험	금액	5,997	5,995	6,647	6,989	7,355	6,888	6,822	6,770	6,954
	비율	7.91	8.63	8.97	7.1	9.11	12.85	11.08	12.04	11.84
한화생명	금액	16,725	18,249	19,825	21,670	15,520	22,050	20,434	20,106	19,436
	비율1	25.55	27.11	28.3	21.69	24.25	24.09	19.97	19.2	20.27
	비율2	15.91	16.44	16.76	14.93	15.57	16.14	13.66	13.24	14.07
삼성생명	금액	32,302	33,308	34,525	37,171	26,581	34,976	35,048	33,054	32,689
	비율1	22.25	22.83	23.44	16.86	21.23	20.09	20.27	19.83	19.79
	비율2	15.3	15.44	15.1	12.09	13.56	12.39	12.76	11.85	12.42
교보생명	금액	16,020	15,983	17,262	18,496	13,007	17,466	16,258	15,612	15,674
	비율1	23.99	23.24	25.33	21	23	22	21	19.83	20.59
	비율2	16.01	14.82	15.93	14.51	14.9	14.2	12.89	12.75	13.49
생보전체 평균 (우체국제외)	금액	127,959	134,650	146,267	161,031	114,272	155,124	156,029	155,050	153,343
	비율1	23.98	25.23	24.2	18.41	20.88	19.87	18.83	18.53	19.30
	비율2	16.63	16.22	16.51	13.97	14.8	14.03	13.31	12.94	13.45

* 사업비:(일반계정+이연신계약비 포함) 기준.

* 사업비율1=(사업비/수입보험료(일반계정) × 100.

* 사업비율2=(사업비/수입보험료(일반계정+특별계정)) × 100

4. 자산운용율

우체국보험 사업의 자산운용률을 살펴보면 <표 2-4>에서 보듯이 주요 민영 생명보험사 및 생명보험사 전체 평균을 모두 상회하고 있다.

<표2-4>

(%)

자산운용률	FY2009	FY2010	FY2011	FY2012	FY2013	FY2014	FY2015	FY2016	FY2017
우체국보험	96	97	98.6	96.4	96.2	97.1	97.3	97.5	95.9
한화생명	92.2	92.9	93.5	94.1	94.2	95.2	95.8	96.2	95.1
삼성생명	94.5	95	95.3	95.7	95.8	96.3	96.5	96.8	96.8
교보생명	93.2	94	94.2	94.5	94.4	95	95.1	95.5	95.5
생보전체 평균 (우체국제외)	91.7	92.7	93.0	94.1	94.3	95.0	95.4	95.8	95.5

* 운용자산, 총자산: 일반계정 기준.

* 자산운용률=(운용자산/총자산) × 100.

5. 효력상실해약률

효력상실해약률은 경기변동, 금리 등 거시경제 변수에 의해서도 변하지만 보험상품의 품질을 측정하는 대용변수이기도 하다. 유사한 상품에 비하여 품질이 나쁘고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지면 해약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는 효력상실해약률의 증가는 수익성의 악화로 이어진다. <표 2-5>에서 보듯이 우체국보험의 효력상실해약률은 주요 민영 생명보험사 및 생명보험사 전체 평균보다 낮아 양호한 상태로 파악된다.

<표2-5>

(%)

효력상실해약률	FY2009	FY2010	FY2011	FY2012	FY2013	FY2014	FY2015	FY2016	FY2017
우체국보험	8.95	6.35	5.12	5.7	4.66	4.1	3.6	3.34	0.04
한화생명	11.52	8.92	8.42	8.58	6.02	7.86	8.04	7.73	7.74
삼성생명	9.59	9.05	8.74	8.61	6.06	7.45	7.19	7.24	7.26
교보생명	12.07	10.35	9.16	9.12	6.44	8.35	7.82	7.87	7.98
생보전체 평균 (우체국제외)	11.2	10.3	9.62	9.95	7.16	8.82	8.47	8.42	8.36

* 효력상실해약금액, 연초보유계약금액, 신계약금액: 일반계정 기준.

* 효력상실해약률=효력상실해약금액/(연초보유계약금액+신계약금액).

제 3 장 수익성 지표

1. 영업이익률

우체국보험 사업의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FY2010에 1.98%로 삼성생명 대비 23.32% 수준이며 민영 생명보험사 전체평균 대비 38.52%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FY2017에는 4.76%로 교보생명에 이어 2위로 높은 수준이다.

영업이익률 산출 방식에서 보듯이 당해연도 당기손익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선적으로 당기순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표3-1>

(%)

영업이익률	FY2009	FY2010	FY2011	FY2012	FY2013	FY2014	FY2015	FY2016	FY2017
우체국보험	0.56	1.98	1.41	2.93	2.64	1.84	2.86	4.41	4.76
한화생명	4.31	4.70	4.38	3.17	3.19	3.09	3.74	1.98	3.54
삼성생명	4.39	8.49	4.99	3.21	3.41	5.11	4.60	8.24	4.60
교보생명	5.60	6.45	5.51	4.55	4.68	4.33	5.41	4.40	5.66
생보전체 (우체국제외)	0	5.14	4.27	2.85	2.79	3.28	3.44	3.59	

* 영업이익률=당기손익/(수입보험료+투자영업수익+영업외수익-투자영업비용), 일반계정 기준

2. 운용자산이익률

우체국보험 사업의 운용자산이익률을 살펴보면 FY2014~FY2015에는 민영 생명보험사 전체평균을 하회하는 이익률을 기록하였지만, FY2017은 4.08%로 대형3사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우체국보험의 자산을 공무원이 운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외부 이해관계자가 종종 제기하는 우체국보험자산을 비전문가가 운영하는 데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다.

<표3-2>

(%)

운용자산이익률	FY2009	FY2010	FY2011	FY2012	FY2013	FY2014	FY2015	FY2016	FY2017
우체국보험	5.71	6.03	5.24	6.09	5.06	3.94	3.85	4.02	4.08
한화생명	5.83	5.86	5.45	5.25	5.04	5.21	4.49	4.06	3.83
삼성생명	5.48	6.38	4.78	4.23	4.27	4.26	3.69	4.17	3.28
교보생명	5.59	5.79	5.55	5.07	4.86	4.74	4.5	4.21	3.97
생보전체 평균 (우체국제외)	5.43	5.88	4.76	4.75	4.61	4.51	4.01	3.92	3.55

* 운용자산이익률=(투자영업이익/경과운용자산) × 100, 일반계정 기준

3. 총자산수익률(ROA)

우체국보험 사업의 총자산수익률은 운용자산에 기타자산을 포함하여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로 운영자산(회계연도말 운용자산/회계연도말 총자산)이 총자산의 약 97% 수준임을 고려할 때 총자산수익률도 운용자산이익률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3-3>

(%)

총자산수익률	FY2009	FY2010	FY2011	FY2012	FY2013	FY2014	FY2015	FY2016	FY2017
우체국보험	0.71	1.62	0.85	1.85	0.62	0.28	0.46	0.66	0.72
한화생명	0.75	0.77	0.78	0.64	0.65	0.48	0.53	0.31	0.49
삼성생명	1.16	1.38	0.61	0.54	0.32	0.56	0.50	0.24	0.38
교보생명	1.01	1.14	0.91	0.86	0.73	0.63	0.69	0.54	0.65
생보전체 평균 (우체국제외)	-	1.02	0.74	0.60	0.48	0.51	0.52	0.32	0.48

* 총자산수익률(ROA)=[당분기 당기순이익/(전회계연도말 총자산+당분기말 총자산)/2]×(4/경과분기수)

4. 위험보험료 대비 사망보험금 비율

위험률차 손익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위험보험료 대비 사망보험금 비율을 살펴보면, FY2009에 100.18%로 예정위험보험료가 실제사망보험 지급 총당에 부족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삼성생명 대비 14.84%p 초과, 민영 생명보험사 전체평균 대비 11.12%p를 초과한 수준이다. 이 비율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FY2015에 90% 수준이나, FY2017은 94.6%로 다시 악화 되었다. 민영 생명보험사 전체평균 대비 해서도 13.42%p를 초과하여 민영 생명보험사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역선택 방지를 위한 청약심사의 고도화 및 지급심사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손해를 개선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표3-4>

(%)

위험보험료대비 사망보험금 비율	FY2009	FY2010	FY2011	FY2012	FY2013	FY2014	FY2015	FY2016	FY2017
우체국보험	100.18	99.63	99.82	96.94	94.54	91.92	90.00	92.65	94.60
한화생명	87.81	84.76	85.35	84.34	81.27	83.96	83.24	83.03	81.58
삼성생명	85.34	84.29	86.73	85.82	87.14	85.52	77.80	84.10	80.39
교보생명	84.88	80.82	84.45	83.96	83.23	81.42	78.56	82.71	78.66
생보전체 평균 (우체국제외)	89.06	88.14	89.49	88.12	87.82	87.11	82.16	84.63	81.18

* 위험보험료 및 사망보험금: 일반계정 기준.

5. 자기자본수익률(ROE)

우체국보험의 자기자본수익률이 주요 민영 생명보험사보다 높은 것은 자기자본수익률 산출 산식에서 보듯이 분모 항목인 자기자본금액이 민영 생명보험사에 비해 월등히 적은 것에 기인한다. 우체국보험은 국영보험으로서 주식회사형 민영 생명보험사와는 달리 설립자본금이 없기 때문이다.

※ 우체국보험의 자기자본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손익

※ 생명보험사 자기자본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손익 + 자본금

<표3-5>

(%)

자기자본수익률	FY2009	FY2010	FY2011	FY2012	FY2013	FY2014	FY2015	FY2016	FY2017
우체국보험	10.19	31.93	18.08	42.12	15.6	6.84	10.32	13.78	13.03
한화생명	9.01	8.02	8	6.93	7.41	5.29	5.81	3.77	6.14
삼성생명	16.4	13.99	3.05	4.79	3.05	5.65	4.88	2.43	3.68
교보생명	15.59	15.11	11.12	10.37	8.84	7.66	8.35	6.61	7.29

* 자기자본수익률(ROE)=[당분기 당기순이익/{전회계연도말 자기자본+당분기말 자기자본}/2] × (4/경과분기수).

제 4 장 평가 및 개선방향

1. 우체국보험의 효율성 지표의 경쟁력 수준

보험사업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인 신계약률, 보험금지급률, 사업비율, 효력상실해약률 등 4개 지표에서 우체국보험과 주요 민영 생명보험사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계약률은 생보 Big 3사 및 생보사 전체 평균을 하회하고 있어 보험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민영 생보사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 보험금지급률이 생보 Big 3사 및 생보사 전체 평균대비 높은 수준으로,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험가입 규모 확대를 통한 일정수준 이상의 수입보험료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입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지급률의 안정화는 곧 운용자산 채원의 확보로 이어져 투자수익을 통한 이익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사업비율은 생보 Big 3사 및 생보사 전체 평균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집행되고 있으나, 추이를 보면 생보사는 감소 추세이나 우체국보험은 지속 상승하고 있어 수익성이 악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수당지급률이 보험관리사의 40% 수준인 내부 직원들의 보험모집 규모가 현재보다 높아진다면 사업비율의 감소를 통한 사업비차익 확보 또는 이를 반영한 보험료 인하 조치 등으로 가격경쟁력을 보다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우체국보험의 효력상실해약률은 생보 Big 3사 및 생보사 전체 평균 대비 낮은 수준으로 완전가입 실천, 고객관리 강화 및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 등을 통해 현 수준을 유지 해야 될 것이다

2. 우체국보험의 수익성 지표의 경쟁력 수준

우체국보험과 주요 생명보험사, 생명보험사 전체 또는 평균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인 영업이익률, 운용자산이익률, 총자산이익률, 위험손해율 등 4개 지표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이익률은 생보사 대비 경쟁력이 열세였으나 FY2016부터 개선 되고 있다. 영업이익률 산출 방식에서 보듯이 당해연도 당기손익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선적으로 당기순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둘째, 운용자산이익률 및 총자산수익률은 과거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생보사 평균을 상회하였다가 2014 ~ 2015년은 하회하고, 다시 최근 상회하는 등 변동성이 크므로 국·내외 경제 상황 및 금리, 주가 변동성 등을 고려한 적극적인 자산관리가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위험보험료 대비 사망보험금비율(위험손해율)을 생보사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역선택 방지를 위한 청약심사의 고도화 및 지급심사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손해율 개선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제 5 장 결 론

우체국보험의 고유 목적인 보험의 대중화를 실현하여 재해위험에의 대처, 경제생활 안정과 공공복리 기여 달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 창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손익관리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신계약률 향상을 통한 성장 도모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수익성과 성장성이며 조직의 성장은 신상품개발과 가입규모 확대를 통해 이루어진다. 신계약률이 높으면 우선 성장성이 좋고 이는 상품에 대한 시장 수용도가 좋다는 말이므로 영업이익률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신계약률이 높으면 과거 고금리 때 판매해 오늘날 저금리로 역마진이 많이 나는 상품구성을 희석하게 되므로 전체 이자율차익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주요 성장성 지표인 신계약률을 높이려는 다양한 영업 전략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언더라이팅 강화 및 체계적인 지급심사로 손해율 개선

손해율 개선의 우선 과제로서 양질의 계약심사와 이를 통한 역선택 방지가 필요하며 심사역량 강화, 손해율 관리 중심의 포상 및 지원제도 도입, 시스템 보완, 심사전문 자회사 설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자금운용 전문가 확보 및 효율성 제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환경에서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떨어지거나 위험이 크더라도 더욱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투자자산의 비율을 늘리는 등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 및 위험자산에 대한 비율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우체국보험은 자금운용 인력조직의 전문역량을 강화하여 수익성을 높이고 더불어 국내 자금운용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자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뉴욕 주재 해외사무소를 확대하고 적극 활용하여 해외 공적 기금과 채휴 등 신규투자 상품 발굴 노력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오늘날 투자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저금리 및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오늘날 투자 환경에서는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안정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연도별 실적]

- 우체국보험 홈페이지 경영공시 자료(2009 ~ 2017)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2009 ~ 2017)

[참고자료]

- 김경환, 박정희, “공제사업 현황 및 감독강화 필요성” (KiRi Weekly 2014.11월)
- “국내 유사보험과 관련된 핵심쟁점 및 개선방안“(한국금융연구원, 2008.5월)
- “우체국보험 및 공제 관련 규제 개선 방안”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3.5월)
- 박한구, “유사보험 운영현황과 건전한 발전방향 “ (금융감독원 조사연구 리뷰, 2004년)
- 이석범 외 5명, “우체국보험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16.10월)
- 류근욱, “생명보험의 수익률 비교와 우체국보험의 시장 경쟁력” (우정정보, 2005년)
- 김정주, “국내 유사보험 규제체계 개선 논의의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13.7월)
- 김경환, 박정희, “공제사업 현황 및 감독강화 필요성”, (보험연구원 KiRi Weekly, ’14.11월)